

사 랑 의 목 짱

# WEEKLY LOVE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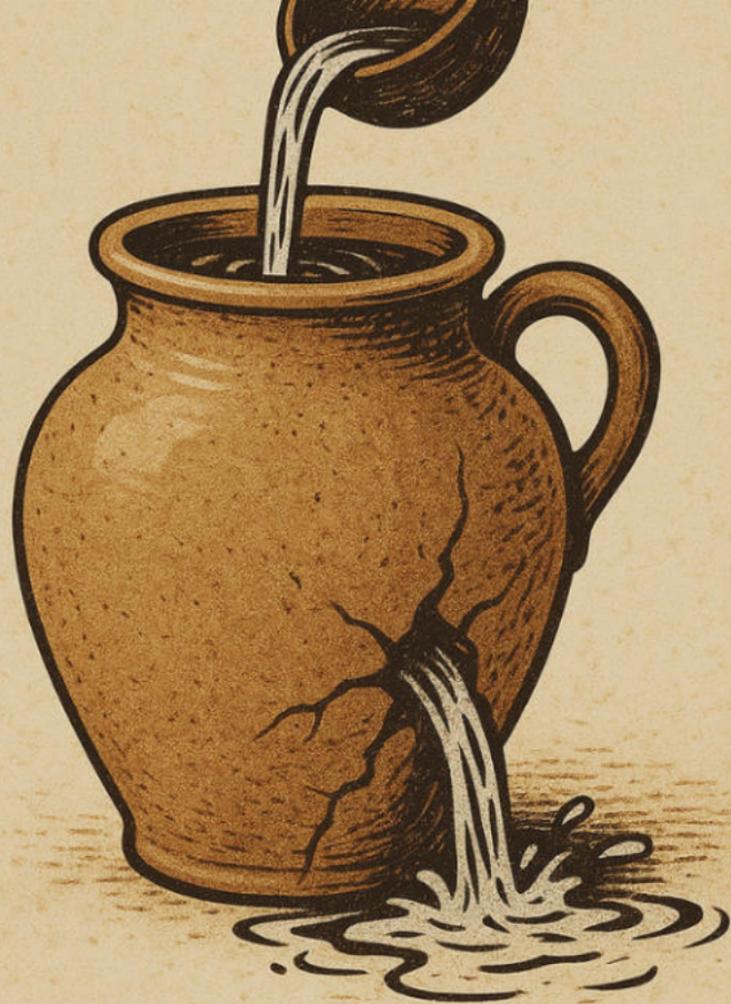
“깨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



혹시 내 인생이 깨진 항아리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무와 좌절만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채우려 애써도 헛수고입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잘살아 보려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성공, 인정, 사랑...모든 것이 잠시 위로는 되지만,  
마음의 갈증은 여전합니다. 결국 자신을 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허전한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무엇인가?”



깨진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항아리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진 우리 인생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겨져야 합니다.  
전히 잠길 때, 비로소 가득 채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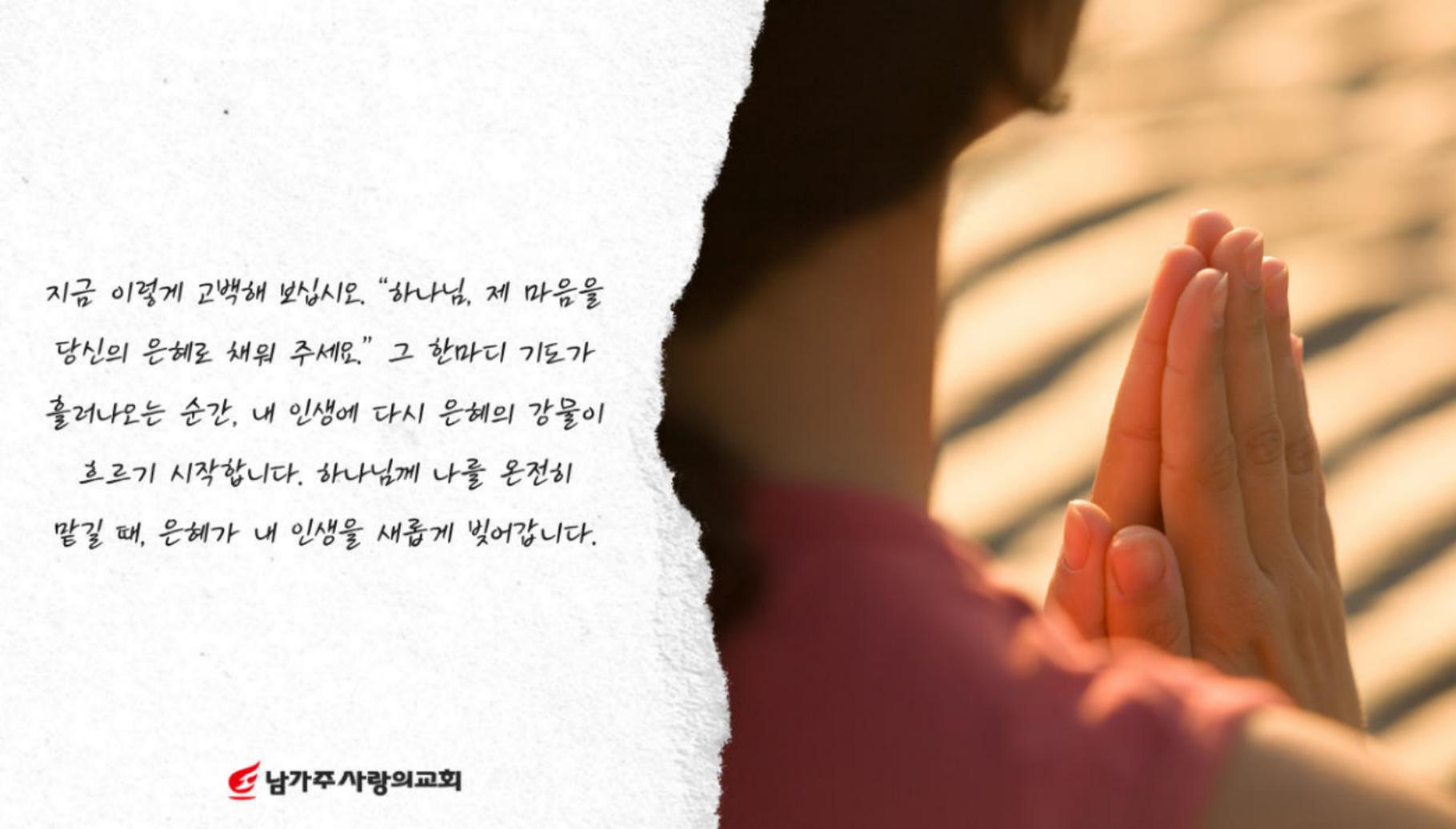


은혜 속에 잠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못한 자아가 은혜로 덮이고,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슬픔과 염려가 은혜의 물살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순간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쓸모없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가  
흘러나오는 순간, 내 인생에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은혜가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매일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속에서도, 하루의 끝 조용한 순간에도  
...평범한 하루가 기적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심경에는 장대비처럼 은혜가 내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정과 일터에서  
성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상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진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누리십시오.

